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수 희

2020년 8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수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김수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성봉



위 원

박정환



위 원

최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김 수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보영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내 중학교 4곳의 1, 2, 3학년 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와 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아봄으로써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우울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연구모형	7
4. 용어의 정의	9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9
나. 관계적 공격성	9
다. 우울	10
II. 이론적 배경	11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11
2. 관계적 공격성	14
3. 우울	16
4. 변인들 간의 관계	18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18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20
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21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3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23
나. 관계적 공격성 척도	24

다. 우울 척도	24
3. 자료처리 및 분석	25
IV. 연구결과	27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27
2.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28
가.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29
나.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31
3.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33
가.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33
나.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35
V. 결론 및 제언	38
1. 결론	38
2. 제언	43
참고문헌	45
Abstract	57
부록	60
부록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61
부록 2. 관계적 공격성 척도	62
부록 3. 우울 척도	63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2
표 III-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3
표 III-3. 관계적 공격성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4
표 III-4. 우울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5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27
표 IV-2.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28
표 IV-3. 남학생 집단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29
표 IV-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자)	29
표 IV-5. 여학생 집단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31
표 IV-6.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 (여자)	31
표 IV-7.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33
표 IV-8. 남학생 집단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33
표 IV-9.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자)	34
표 IV-10. 여학생 집단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35
표 IV-11.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 (여자)	36

그림목차

그림 I -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8
그림 I -2.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8
그림 IV-1. 남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30
그림 IV-2.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32
그림 IV-3. 남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35
그림 IV-4.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급속한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 인지,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장휘숙, 2007).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또래관계를 확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이러한 변화는 중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과격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교육과학기술부(2018)에서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34.7%, 집단따돌림 17.2%, 스토킹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 10.8%의 비율이 신체폭행 10.0%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공통으로 집단따돌림, 언어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약 15%)이 초등학교(9.2%)와 비교해서 약 6%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청소년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폭행보다 왕따, 은근한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은밀한 형태의 따돌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rick과 Grotpeter(1995)는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 외현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초기 대부분의 공격성 관련 연구들은 타인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이나 때리고 밀치는 등의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공격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왔고(Crick, Grotpeter, & Bigbee, 2002),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은 유형을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

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관계적 공격성이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감정 혹은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성을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5).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소문 퍼뜨리기, 직접적인 통제, 우정관계 손상시키기, 집단에서 은근히 배제하기, 뒷말하기 등이 있다(Crick, & Nelson, 2002). 청소년기에 특히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rikson, 1980). 상대방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외현적 공격성은 사회적 지능이 점차 발달하는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서미정, 2012)과 다르게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지능이 발달하는 중학교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홍, 김은정, 2012).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래에 대한 자기 개방성이 증가하면서 분노,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교묘하게 표출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rick, Ostrov, & Werner, 2006).

관계적 공격성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문제행동이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 변인을 들 수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애착 등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이하연, 2014). 부부갈등이 빈번하게 지속될 때 자녀는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적 감정에 노출되게 되고 이후 또래 관계 안에서 부정적으로 각성된 정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Cummings, Goeke-Morey, & Papp, 2004), 부모의 갈등,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고도 밝혀진 바 있다(Yoon, Barton, & Taiariol, 2004). 그 외에도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심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불안감 및 욕구 좌절을 증가시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전주람, 김순옥,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기의 관계적 공격성에 중요한 변인인 이유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자녀의 또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적 기대를 습득하고 결국 아동에게

양육행동이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주요 발달의 맥락이 되기 때문이다(김정화, 2015).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의 한 차원으로서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종희, 2012; 한은미, 2014; 현지은,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언어 및 감정표현을 제한하고 비난, 애정철회로 위협하거나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부모의 방식대로 조정하려는 행동을 말하며 자녀에 대한 낮은 수용과 높은 통제를 의미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Barber, 2002). 특히, 청소년기는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청소년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Barber, 1996). 현지은(2010)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밖에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사용되는 애정철회와 같은 양육태도가 상대방을 소외시키거나 우정관계를 철회함으로써 또래의 행동을 조정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과 구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이하연, 2014; Nelson, & Crick, 2002). 이는 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 관점으로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은 그 행동양식이 매우 유사하여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여 또래관계에서도 유사한 대인관계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경미, 2016).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성을 표출할 경우 이차적인 거절 및 거부를 경험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여 자신이 느끼는 공격적인 부적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른 채 교묘한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다소 부적절한 수동공격형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이하연, 박주희, 2014).

공격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Maccoby, & Jacklin, 1974). 하지만 Crick 등(199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경희, 오경자(199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여아에게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Henington, Hughes, Cavell과 Thomson(1998)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

보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Loukas, Paulos와 Robinson(2005)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은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erwood, Galen과 Paquette(2001)는 연구마다 성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연구대상 연령대에서의 차이나 공격성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정원, 김현주(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어머니의 통제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공격성을 증가시켰고(Kagan, & Moss, 1962), 아버지는 여아의 관계에서 더 영향력이 있었다(Barber, 1996). 이전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체로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거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도금혜, 2011; 민규영, 신민섭, 송현주, 2013)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박성연, 2002; 박신영, 2014; 박효정, 박주희, 2015; 조은주, 이은희, 2013) 이들의 영향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개인 외적 변인은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거나 낮추게 되는데,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우울, 정서조절, 불안, 거부민감성, 자기통제력 등이 있다. 그 중 우울은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공병이 자주 관찰되는 요인이다(신현숙, 2013). 우울은 단순한 슬픔 및 울적한 기분 상태부터 지속적으로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심각한 정서장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Beck(1976)은 우울을 지각, 판단, 인지, 기억, 태도, 사고 등에서부터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등 광범위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우울 진단을 받은 13세~17세 아동, 청소년 74명 중 대부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대략

1/4은 여러 장소에서 공격성을 보이며(Knox, King, Hanna, Logan, & Ghaziuddin, 2000),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우울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Grotpeter, 1995).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화를 더 잘 내고 성급한 행동을 보이며, 이런 경향성은 과민성을 점점 심화시키고 이러한 감정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데(Ollendick, Wolff, 2006), 초기 청소년들은 관계 중심으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보다 관계적 공격성으로 많이 표출되기도 한다(이익섭, 최정아, 2008).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기, 최윤정, 2012; 정주영, 2014; 주지영, 2009). 이처럼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여주는 가해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유자, 백용매, 2000),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태화, 황순택, 2015).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독특한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데(김은정, 오경자, 1994), 이러한 인지도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이 되며 이때 형성된 인지도식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직면하면 활성화되어 그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우울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Beck, 1976). 국내의 연구에서도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 외로움,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신미지, 김태경, 2013; 장창현, 2006). 또한 부모의 지지와 감독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대는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2012; 정은선, 조한인, 2009; 정지영, 김종남, 2011). 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심리적 통제의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 했을 때, 아동의 부적절감이나 무기력감이 증가하고(안명희, 신희수, 2012), 공격성이 높아지며(백문숙, 장석진, 2017),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영, 박성연, 2008; 신미지, 김태경, 2013).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낮추었고(박효정, 박주희, 2015),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공격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복실, 2007).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성취 지향적 심리통제, 죄의식 유도, 애정철회와 같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김희영, 박성연, 2008).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심어주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적 행동, 비행, 자살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회적 지능이 발달하고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또래관계 안에서 표출하는 관계적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서는 자녀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김미영, 강윤주, 2000)는 선행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기에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별을 나누어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두 변인 사이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된 결과를 통해서 중학교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돕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우울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가설 1-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가설 2-1.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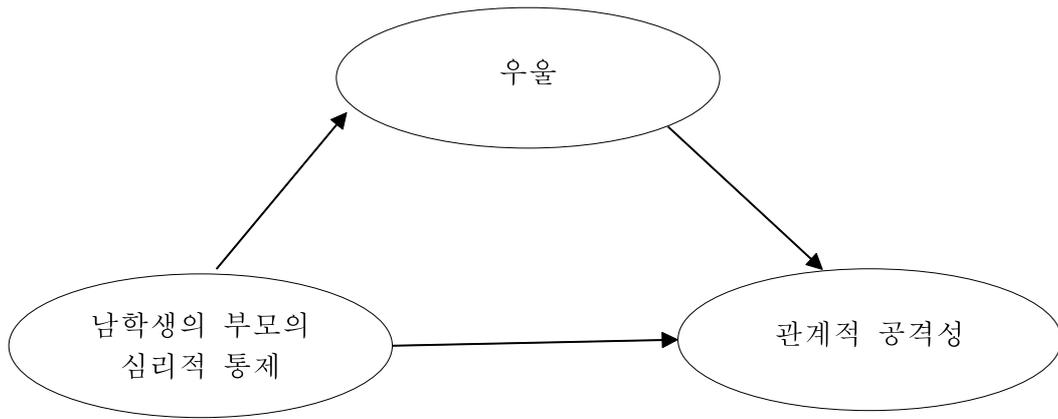


그림 I -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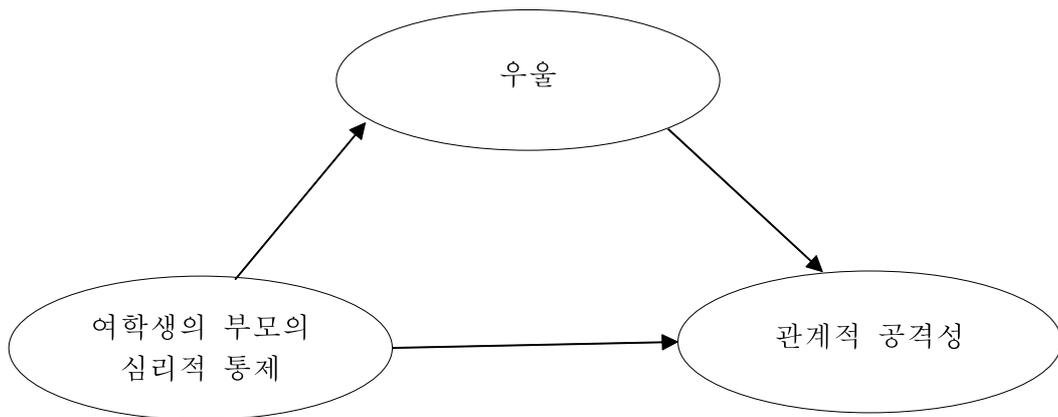


그림 I -2.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철회, 자녀의 죄책감 유발 등의 심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의 개인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며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뜻한다(Barber, 1996).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토대로 전숙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나.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감정 혹은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성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소문 퍼뜨리기, 뒷말하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등이 있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위협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으로 보복적인 특성을 지닌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특정한 보상을 얻으려는 수단적인 특성을 지닌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Little, Henrich, Jones, & Hawley, 200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CS; Peer Conflict Scale) 중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다. 우울

Radloff(1977)에 의하면 우울 증상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함, 무력감, 절망감, 식욕 저하, 그리고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우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면서 인지, 사고, 지각, 판단, 기억,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Beck, 197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9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cale)를 전검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이효심, 2011).

부모의 양육 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수용차원과 통제차원에서 나타나는 행동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론적 접근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Steinberg, Elmen, & Mounts, 1989). 하지만 이러한 유형으로 구분한 접근은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각 차원과 아동의 적응 및 발달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었다(Darling, & Steinberg, 1993).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최근 연구의 동향은 기존의 유형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행동을 부모지지, 부모통제로 범주화하고 이 중 부모통제는 다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의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Barber, 1996). 이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양육통제는 효과적인 양육의 측면으로 간주되기도 하였고, 지배적이고 부정적인 양육의 측면으로 간주되기도 하여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일관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통제차원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 통제행동의 행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 간의 차이를 제안하여 통제가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인지, 심리내적인 통제인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Barber, 1996).

Barber(1996)에 의하면, 행동적 통제는 가족이나 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녀의 취침 시간이나 자녀의 귀가 시간, 친구를 대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

도하고 감독,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 심리적 통제는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부모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행동을 제약하거나 통제하고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자녀의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것 등의 양육행동을 말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특징을 살펴보면(Barber, & Hamon, 2002) 첫째, 심리적 통제는 아동 및 부모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전술적 전략으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 애정을 거두거나 불안을 조장하기, 자녀에게 죄책감 불러일으키기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균형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는 것인데,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를 알아갈 기회를 빼앗게 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게 된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감정적 처벌, 과도한 기대, 불일치적인 정서적 표현, 거부와 적대적인 무관심, 아동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 등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청소년의 심리적 자율성의 발달을 억제하게 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감을 이끌고 자기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데 실패하게 만든다(Barber, Olsen, & Shagle, 1994).

이러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적당한 수준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지지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ber, Stolz, & Olsen, 2005). 반면에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는 양육행동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통제하는 양육방식으로 자녀의 자율성 손실을 주며 이는 다시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 신뢰와 자신감의 결손으로 연결된다(Nelson, & Crick, 2002). Barber(2002)에 따르면 심리적 통제를 ‘간섭적인’ 양육이라 하였고, 이는 아동의 자기표현, 정서, 사고과정, 애착에 이르는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전 연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중학교 시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arber, 1996).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는 대체로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거나,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도금혜, 2011; 민규영, 신민섭, 송현주, 2013)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들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된 연구를 보자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박신영, 2014; 박효정, 박주희, 2015; 이하연, 박주희, 2014). 이것은 지금까지는 자녀양육 측면에 있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이 관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 괴롭힘, 대학 생활 적응, 가해 동조행동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쳤으며(김유리, 김희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주로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완벽주의, 사회 부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자녀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쳤다(김희영, 박성연, 2008; 이서란, 2014; 현지은, 2010).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보다 아버지의 역할 수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남진열, 김상미, 2011),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증가시켰다(한연숙, 2007).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그러나 박성연 등(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는 서로 다른 영향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하여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개념을 Barber(1996)의 이론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 관계적 공격성

공격성의 개념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성’을 포함한 공격행위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Dodge, Coie, & Lynam, 2006).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청소년들의 외현적 공격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공격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신체적인 공격 및 폭력적인 범죄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유형이 점차 드러나지 않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경미, 2016).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또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Crick과 Grotpeter(1995)는 신체적 혹은 외현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직접적 공격을 하는 것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직접적으로 걸어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내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뒷담화하기, 소문 퍼트리기, 우정관계 조작 등)하여 의도적으로 한 개인의 관계나 감정을 손상시켜 집단에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간접적인 공격 형태라고 하였다. 즉, 외현적 공격성은 걸어로 드러나는 언어적, 신체적인 행동적 측면이 강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집단이나 가족과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걸어로 드러나지 않게 교묘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동 공격적인 측면이 강하다(김보람, 2016).

공격적인 청소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며, 참을성이 없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대결을 즐기며 타인을 착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한 처벌이나 죄의식, 자책에 둔감하여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박진우, 2006). 이와 같은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걸어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얼핏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고(곽금주, 1992) 감정 안에 내재화된 채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인 공격 즉, 외현화 공격성은 감소하는 반면, 걸어로 드러내지 않은 채 집단 안에서 소외시키거나 해하려

는 의도를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점차 성장하고 사회지능이 발달하면서 공격성의 표출 수단을 변경하여 집단 규범에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이홍, 김은정, 2012). 특히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Lerner, & Steinberg, 2009) 집단의 일원을 소외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이 외현적 공격성보다 외로움, 또래 거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rick, Ostrov, & Werner, 2006). 실제로 공격성과 관련된 발달체적을 연구한 선행연구(Archer, 2004)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의 발생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렇듯 공격성은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비행, 낮은 학업성취, 그리고 심지어 범죄나 정신 병리와 같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Coie, & Dodge, 1998).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남녀 성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Underwood, Galen과 Paquette(2001)는 연구마다 성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연구대상 연령대에서의 차이나 공격성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rick 등(199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경희, 오경자(199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여아에게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Henington, Hughes, Cavell과 Thompson(199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Loukas, Paulos와 Robinson(2005)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은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바람직한 사회적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우울

Radloff(1977)에 의하면 우울 증상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함, 무력감, 절망감, 식욕 저하, 그리고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또한 우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면서 인지, 사고, 지각, 판단, 기억,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Beck, 1976). 또한 정신과적 진단체계인 DSM-5에 의하면 우울증은 2주 동안 우울한 기분이나 즐거움의 상실이 지속되어야 하며,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 수면장애, 운동성 흥분 또는 지체, 피로감 또는 활력 상실, 무가치한 느낌이나 죄책감, 주의 집중의 어려움, 자살에 관한 생각 등의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첫째, 지속적인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 흥미와 기쁨 상실 등의 정서적 증상을 동반하며 둘째, 자기비난과 자기비하, 죄의식, 무가치감,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을 동반하고 셋째, 불면증과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Hamilton, 1982). 이렇듯 우울은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김정희, 1987).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급속한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 인지,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장휘숙, 2007), 다른 어떤 시기보다 다양한 갈등과 높은 긴장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와 외현화 문제(공격성, 비행)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데,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는 많은 학생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부적응 중 하나이다(우희정, 최정미, 2004).

우울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행동주의적 입장, 정신분석적 입장 등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이론은 Beck에 의해 제시된 인지

이론이다. Beck(1974)은 개인이 지닌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인지 및 사고의 패턴이 우울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Beck의 설명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해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기대를 가지며, 이 세 가지의 인지 요소가 자신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울에 빠지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과잉 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개인화와 같은 인지적 오류로 인하여 현실을 바라볼 때 실제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평가한다. 인지적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심리적 고통이 더해져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권석만, 2013).

우울의 특징으로 흥미와 기쁨을 상실하며 외로움, 슬픔, 공허감 등 정서적인 증상과 주의력 및 사고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 그리고 불면증, 식욕감퇴,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이 동반된다고 말한다(Beck, Weissman, Lester, & Trexler, 1974). 우울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회피와 거부, 위축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Krantz, 1985), 대인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도 빈번히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특히 청소년 우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부족, 자기비하 등의 인지적 도식이 습관적인 부정적 사고를 갖게 하여 우울증을 초래하고 이 우울증은 다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였다(Beck, 1976). 또한 우울 증상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신체적 짜증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자기조절이 어려워 파괴적인 행동표현으로도 나타나며(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자살, 문제행동, 약물남용, 불안장애 및 손상된 사회적인 기능과 같은 개인적 및 사회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Field, Diego, & Sanders, 2001). 이러한 청소년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Lewinsohn, Rohde, Klein, & Gotlib, 2003).

청소년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우울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제미영, 2014). 먼저 개인 내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며, 자기평가를 할 때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여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Lee, & Hankin, 2009). 또한 자기 자신, 타인 혹은 세상에 대해 역기능적 신념을 가질수록 일상생활에서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했다(김소영, 2014).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부모와 가족이다. 이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돌봄 수준이 낮아 무관심, 냉담함, 거부, 무시와 같은 특징을 보일수록, 그리고 과잉간섭을 통해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민병배, 2006).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발달적 맥락변인으로 양육의 세분화된 차원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김혜인, 2010; 현지은,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함으로써 부모로부터 심리적, 신체적으로 독립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는 발달적·사회 환경적·심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이며(Rutter, 1986), 특히 우울 증상이 다른 형태의 행동적 적응 문제로 표출되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 많은 부적응을 초래하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4. 변인들 간의 관계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들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 중 통제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Barber(1996)에 의해 통제의 형태에 따라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행동 통제는 비교적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McWayne, Owsianik, Green, Fantuzzo, 2008). Barber(1996)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지속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거나, 슬픔과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Barber(1996)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방식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였으며, 이것은 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행동 방식을 학습하는 주요 발달 맥락으로,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을 모방과 모델링의 방식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다(Bandura, 1978). 부모가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방식을 자녀들이 모델링을 통해 습득해 자신의 대인관계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애정을 철회하겠다고 압박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친구를 집단에서 우정관계를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식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Barber, 1996).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아, 권해수, 2015; 이하연, 박주희, 2014).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행동 방식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통제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박효정, 박주희(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자녀들이 더 높게 지각한다고 나타났고, 아동의 자율성 충족을 매개로 연구한 한송이, 장석진(201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보일 수 있는 관계적 공격성의 크기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여자 중학생이 시샘 및 질투를 매개로 남자 중학생보다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나타났고(강다겸, 장재홍, 2013),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질투 정

서에 집중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높게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은진(2017)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적 공격성은 성별에 따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각각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부모와 가족이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행동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현숙, 2012; 정은선, 조한익, 2009; 정지영, 김종남, 2011; Blatt, & Homann, 1992). 우울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이 애정과 지지가 적었고 부모의 권위와 통제, 비난이 과도하게 높은 양육방식이라고 하였다(Blatt, & Homann, 1992).

이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돌봄 수준이 낮아 무관심, 냉담함, 거부, 무시와 같은 특징을 보일수록, 그리고 과잉간섭을 통해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민병배, 2006). 또한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 외로움,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신미지, 김태경, 2013; 장창현, 2006). 부모의 지지와 감독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확대는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2012; 정은선, 조한익, 2009; 정지영, 김종남, 2011).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가 성취 지향적 심리통제, 죄의식 유도, 애정철회와 같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김희영, 박성연, 2008). 부모가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인, 2010).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자녀들은 우울한 감정을 더 자주 느꼈으며, 일하기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정유나,

201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보아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청소년기는 발달적·사회 환경적·심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이며(Rutter, 1986), 특히 우울 증상이 다른 형태의 행동적 적응 문제로 표출되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청소년의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부적응적인 우울은 건전한 자아의식 발달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저해한다(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하지만 청소년기는 어느 때보다 또래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래에 대한 자기 개방성이 증가하면서 분노,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교묘하게 표출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rick, Ostrov, & Werner, 2006).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중 우울은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공병이 자주 관찰되는 요인으로(신현숙, 2013)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여주는 가해자의 심리 정서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자, 백용매, 2000).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홍태화, 황순택, 2015), 일반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우울 증상 수준이 공격적이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폭력 가해자가 분노나 적대감 이상으로 심각하게 우울했다(Maiuro, Sahn, Vitaliano, Wagner, & Zegree, 1988)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우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9월 10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제주도내 4곳의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수락한 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를 사전에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시간, 설문지의 기재 방법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해 배부하였다. 그리고 담당 교사로부터 자료 설문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눠준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총 355부를 배부하여 설문지는 모두 회수하였으나 이 중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서명이 없는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88.15%였고, 설문 작성 시간은 평균 15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3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67	49.9
	여학생	168	50.1
학년	1학년	114	34.0
	2학년	104	31.0
	3학년	117	34.9
연령	14세	115	34.3
	15세	104	31.0
	16세	116	34.6
전체		335	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Barber(1996)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심리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감정 불인정,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불안정한 감정 기복, 애정철회 등을 측정하기 위해 총 6개 하위요인과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최소 16점에서 최고 64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고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rber(1996)의 5~8학년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부가 .80, 모가 .83이었고, 전숙영(2007)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모가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16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III-2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2로 나타났다.

표 III-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16 .9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16 .92

나. 관계적 공격성 척도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CS; Peer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0개 문항으로,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 척도를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에서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20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잘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또래를 소외시켜 우정관계나 소속감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어 관계를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한 이하연(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20개 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III-3에서와 같이 .91로 나타났다.

표 III-3. 관계적 공격성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2, 4, 6, 8, 10 12, 14, 16, 18, 20	10	.84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 3, 5, 7, 9 11, 13, 15, 17, 19	10	.84
전체		20	.91

다.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9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cale)를 전검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위요인인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응답 방식으로는 ‘극히 드물게(1점)’에서 ‘거의 대부분(4점)’까지 청소년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감정 요인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을 드물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하위요인 점수들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문항 전체에 대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및 문항 구성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우울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우울 감정	3, 6, 9, 10, 14, 17, 18	7	.90
긍정적 감정	4*, 8*, 12*, 16*	4	.84
신체 및 행동 둔화	1, 2, 5, 7, 11, 13, 20	7	.79
대인관계	15, 19	2	.87
전체		20	.93

*문항 응답치를 역채점함.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여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335명)

변인	M	SD	왜도	첨도
부의 심리적 통제	1.66	.55	1.00	.89
모의 심리적 통제	1.70	.56	1.02	.98
관계적 공격성	1.30	.32	1.93	5.08
우울	1.84	.60	.96	.71

독립변인인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 전체 평균값은 1.66점(SD=.55)으로 나타났다. 부의 심리적 통제는 4점 척도로 2.5점을 '보통이다'로 보았을 때,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부의 심리적 통제 정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부의 심리적 통제를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의 전체 평균값 1.70점(SD=.56)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모의 심리적 통제 역시 비교적 낮

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의 전체 평균값은 1.30점(SD=.32)으로 보통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관계적 공격성은 4점 척도로 2.5점을 ‘보통이다’로 보았을 때,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한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관계적 공격성을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우울 평균값은 1.84점(SD=.60)으로, 우울 척도가 4점 척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보통점수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IV-2.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335)

변인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6**	1	
관계적 공격성	.34**	.21**	1

** $p < .01$

위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46, p < .01$)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심리적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역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34, p < .01$)을 나타내어 부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1,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의 효과와 이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IV-3. 남학생 집단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7)

변인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6**	1	
관계적 공격성	.41**	.36**	1

** $p < .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r = .41, p < .01$)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 = .36, p < .01$)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남자)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41	.06	.46	6.64***
			$R^2 = .21$	$\Delta R^2 = .21$	$F = 44.12^{***}$	
2	부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28	.05	.41	5.85***
			$R^2 = .17$	$\Delta R^2 = .17$	$F = 34.19^{***}$	
3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21	.05	.32	4.06***
			.16	.06	.21	2.69**
			$R^2 = .21$	$\Delta R^2 = .20$	$F = 21.37^{***}$	
Sobel's test $Z = 2.50^*$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beta=.4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41, p<.001$).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을 같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부의 심리적 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대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2.50으로 남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값이 ± 1.96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는데, 남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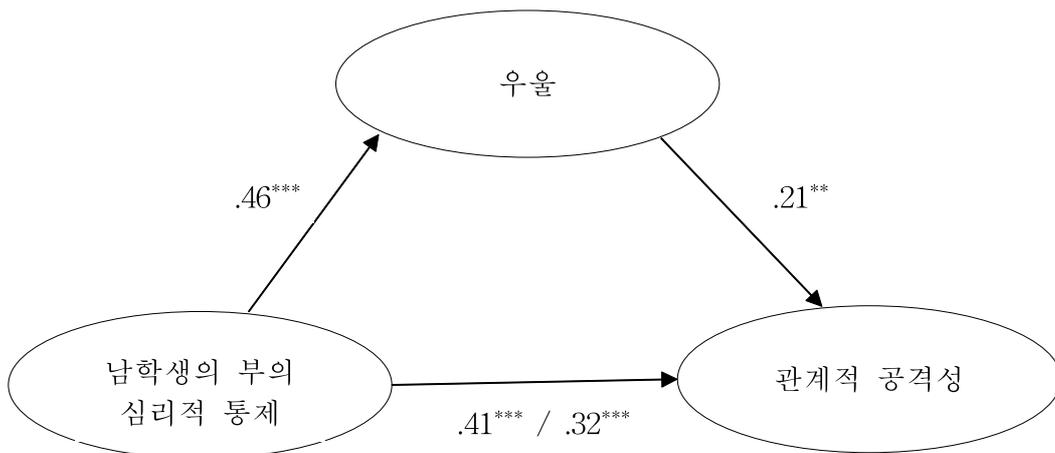


그림 IV-1. 남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나.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IV-5. 여학생 집단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8)

변인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53**	1	
관계적 공격성	.18*	.24**	1

* $p < .05$, ** $p < .01$

위의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 = .18$,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살펴본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r = .53$, $p < .01$)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 = .24$, $p < .01$)은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여자)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66	.08	.53	8.08***
			$R^2 = .28$	$\Delta R^2 = .28$	$F = 65.29$	***
2	부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08	.03	.18	2.41*
			$R^2 = .03$	$\Delta R^2 = .03$	$F = 5.80$	*
3	부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03	.04	.08	.88
			.07	.03	.20	2.23*
	우울	$R^2 = .06$	$\Delta R^2 = .05$	$F = 5.45$	**	
Sobel's test $Z = 2.19$ *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beta=.5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8, p<.0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우울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해본 결과, Sobel의 Z값은 2.19로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내어,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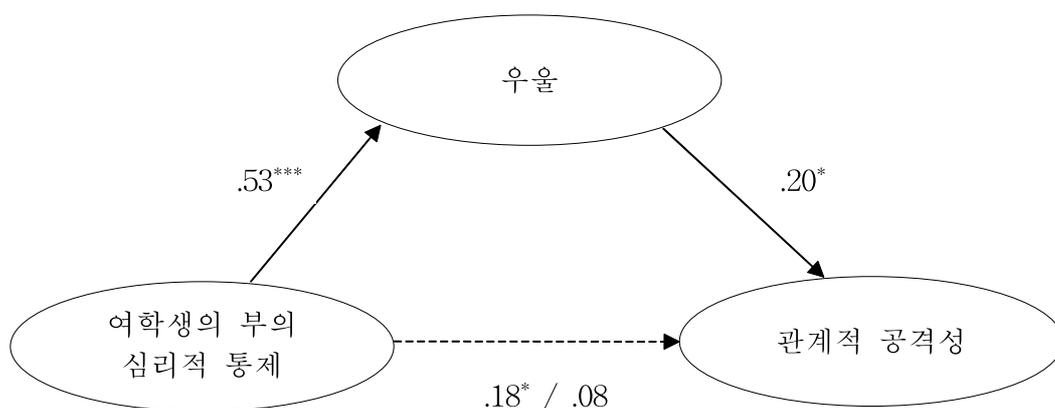


그림 IV-2.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3.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IV-7.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335)

변인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모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9**	1	
관계적 공격성	.33**	.21**	1

** $p < .01$

위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49, p < .01$)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심리적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33, p < .01$)을 나타내어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 또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1,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경험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의 효과와 이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 절차를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IV-8. 남학생 집단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7)

변인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모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1**	1	
관계적 공격성	.44**	.36**	1

** $p < .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r=.44, p<.01$)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36, p<.01$)이 앞서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r=.41, p<.01$)은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남자)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38	.06	.41	5.79***
	$R^2=.17 \quad \Delta R^2=.16 \quad F=33.50^{***}$					
2	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31	.05	.44	6.34***
	$R^2=.20 \quad \Delta R^2=.20 \quad F=40.18^{***}$					
3	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25	.05	.36	4.75***
	우울	공격성	.16	.06	.21	2.80**
$R^2=.23 \quad \Delta R^2=.22 \quad F=24.85^{***}$						
Sobel's test $Z=2.52^*$						

* $p<.05$, ** $p<.01$, *** $p<.001$

위의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beta=.4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44, p<.001$).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을 같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앞서 남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모의 심리적 통제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2.52로 남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값이 ± 1.96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는데, 통계치가 2.52($p < .05$)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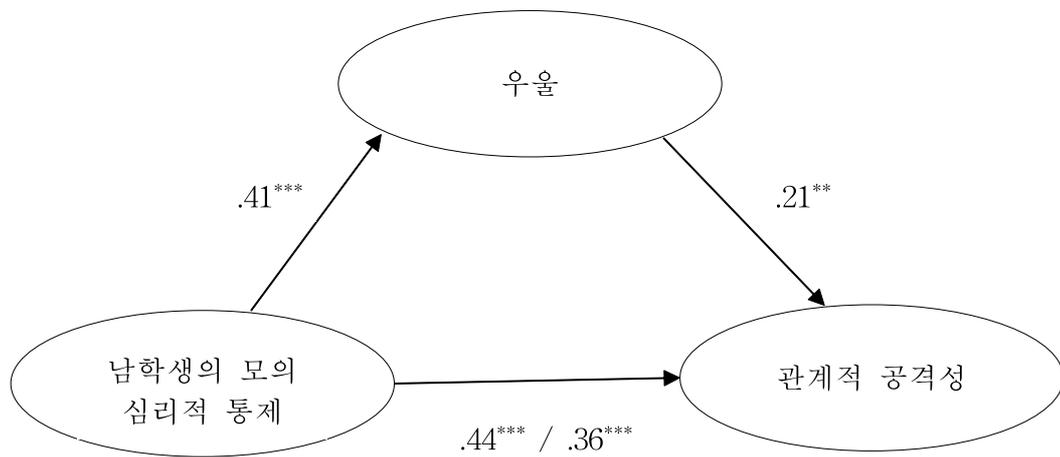


그림 IV-3. 남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나.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IV-10. 여학생 집단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8)

변인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모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57**	1	
관계적 공격성	.19*	.24**	1

* $p < .05$, ** $p < .01$

위의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r = .57$, $p < .01$) 및 모의 심리

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19, p<.05$), 그리고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24, p<.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상관과 비교를 하면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19, p<.05$)을 제외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은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1.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여자)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모의 심리적통제	우울	.66	.07	.57	8.98***
			$R^2=.33$	$\Delta R^2=.32$	$F=80.71^{***}$	
2	모의 심리적통제	관계적 공격성	.07	.03	.19	2.46*
			$R^2=.04$	$\Delta R^2=.03$	$F=6.06^*$	
3	모의 심리적통제	관계적 공격성	.03	.04	.08	.81
			.07	.03	.20	2.14*
	$R^2=.06$	$\Delta R^2=.05$	$F=5.39^{**}$			
Sobel's test $Z=2.11^*$						

* $p<.05$, ** $p<.01$, *** $p<.001$

위의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beta=.5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9, p<.0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우울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해본 결과, Sobel의 Z값은 2.11로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에 우울이란 매개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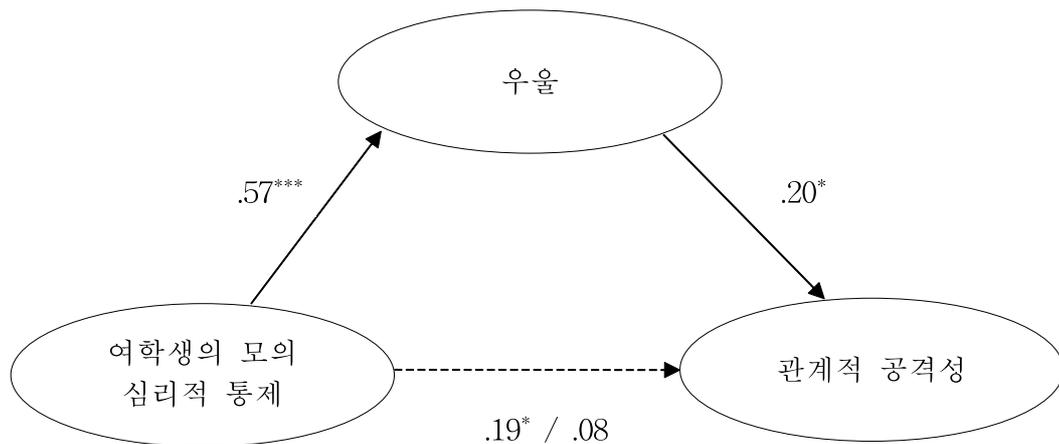


그림 IV-4.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 있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에서 우울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있다.

셋째,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있다.

이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안명희(2014), Doyle와 Markiewicz(2005), Barber(1996)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

의 우울, 불안이 정적관계를 보이며,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문제행동과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높아진다는 연구(이하연, 박주희, 2014; 현지은 2010)와도 일치한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동기, 최윤정, 2012; 정주영, 2014; 주지영, 2009).

둘째,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갈등,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Yoon, Barton, & Taiariol, 2004)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심리적 통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의 유사한 양상으로 보여지듯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처리 및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또래관계에 재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모로부터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들은 또래관계에서 타인의 거부나 낙인으로 이끌 수 있는 외현적인 공격성보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을 흔히 보이는 것이다(Xie, Cairns, & Cairns, 2002).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더니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우울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우울을 부분매개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김경아,

권해수, 2015; 이하연, 박주희,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우울 증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정주영, 2014; Ferguson, Averil, & Rhoades, 2005)와도 일치한다.

셋째,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집단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이란 매개변인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이 높은 아동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이 실제와 이상의 자기개념 불일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증상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나타난 연구결과(박우정, 정진복, 2015)와 유사하며, 또한 Roland(2002)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이 높을 때 공격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에 명백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매개변인인 우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대표적인 정서요인으로(Kuehner, 2003), 국내외 역학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우울 장애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약 1.5~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연구(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에서도 우울 증상은 초등학교 4~6학년 때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다가(조수철, 이영식, 1990; 최진숙, 조수철, 1990) 중학교 시기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인재, 2007;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또한 201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28.2%로 남학생은 22.2%, 여학생 34.6%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직접경로가 나타난 이유는 여자 청소년만이 가지는 관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훨씬 더 늦게 독립하는 경향이 있어(Huston, & Alvarez, 1990) 가족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다(한혜준, 1994). 이렇듯 남성에 비

해 여성이 더 관계지향적(Rose, & Rudolph, 2006)이고, 정서적인(Goleman, 1995) 측면이 강하며, 어린시절 경험하는 부모의 비난, 애정철회, 죄책감 유발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오는 좌절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 우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대표적인 정서요인으로, 특히 급속한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 인지,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 특징과 여학생의 우울이 증가하는 발현 시기와 맞물려 더욱 여학생의 우울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2007)의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소외감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은 소외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와같이 여학생은 소외감이 자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소외를 받아 생긴 감정이 우울을 높이고 높아진 우울 정서가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Kopper 등(1998)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여학생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우울은 여학생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사회기능이 발달하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시기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우울을 높이고, 내재된 우울은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울이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학생과는 달리 남학생의 경우에는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은 목표·성취지향적 성향이 강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으며 어려움을 내재화 하기보다는 외현화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나약하면 안 된다는 통념 속에 남성에게는 감정을 통제하도록 기대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우울증상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내재화 하는 여성과는 달리 남성은 자신의 우울 감정에 둔감한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우울해지면 타인을 비난하거나 내부의 갈등을 행동화하고 어떻게든 문제해결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우울 감정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

주의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남학생의 경우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억압·통제하고 심리적 자유를 주지 않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의 부모의 방식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외부의 환경적 스트레스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데, 사회기능이 발달하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시기에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신체폭력과 같은 외현적 공격성의 형태가 아닌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교묘하게 표출하는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을 매개로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남학생의 우울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남학생의 비행 행동의 이면에 소외감, 우울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며, 성별에 따라 우울이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데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짧은 상담기간 남녀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맞춤형 개입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이 지속될 경우,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발달상 과업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우울로 인해 기분저하,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다. 또한 청년기의 우울은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예방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심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부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확인됨에 따라,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주요한 변인이며 추후 연구에서 계속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와의 상담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 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내함으로써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율

적이고 수용적, 비통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라는 개념을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우울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기나 아동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보았으며 성별을 나누어 관계적 공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본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4개 중학교 학생들로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다른 중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연령 집단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 성별, 문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보고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측정이 안고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의 가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실제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통제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에 대한 보고도 함께 받아서 보다 총체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또래, 사회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과 자기통제력,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므로 그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가 성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왜 성별에 따른 매개변인의 효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다겸, 장재홍(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449-470.
- 곽금주(1992). **공격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권석만(2013). **현대 이상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아, 권해수(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평가 불안과 분노억제의 매개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39-156.
- 김동기, 최정운(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및 우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249-268.
- 김미영, 강윤주(2000). 청소년기 우울 성향과 관련된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2), 261-270.
- 김보경, 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보람(201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정용철(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3(1), 5-28.
- 김소영(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신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 김희정(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단절의 관계. **상담학연구**, 14(5), 3041-3064.
- 김유자, 백용매(2000). 정상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3(1), 139-160.
- 김은정, 오경자(1994). 우울 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 요인들: 3

- 개월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9.
- 김은진(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김현주(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아동교육**, 16(2), 85-93.
- 김정화(2015). 중학생의 학업소진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2), 159-183.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 9-31.
- 김혜인(2010).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남녀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박성연(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 남.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모형.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1(3), 115-131.
- 남진열, 김상미(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 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 도금혜(2011). 아동이 지각한 부의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 및 신체 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3(1), 35-49.
-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33(3), 135-155.
- 민규영, 신민섭, 송현주(2013).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5(1), 1-16.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신영(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우정, 정진복(2015). 실제-이상 자기개념 불일치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중심. **재활심리연구**, 22(2), 291-304.
- 박진우(2006).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 박주희(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21-39.
- 백문숙, 장석진(201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기 사이버 폭력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199-224.
- 서미정(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8, 157-186.
-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2009). 남녀중학생의 정서적·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 22(2), 1-22.
-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미정(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지**, 7(1), 109-135.
- 신미지, 김태경(2013). 부모의 거절과 통제행동 및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지**, 2(1), 89-109.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2012).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발현시기와 연령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31(1), 93-114.
- 신현숙(2012). 남자청소년의 우울과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2), 1-27.
- 신현숙(2013). 남녀 청소년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우울, 자극추구성향,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2), 191-215.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학교심리학회**, 9(2), 347-366.

- 안명희(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60.
- 안명희, 신희수(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우희정, 최정미(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91-200.
- 이경미(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오경자(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173-187.
- 이복실(2007).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폭력 경험 및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3, 25-50.
- 이서란(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7(4), 576-585.
- 이익섭, 최정아(2008).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학교부적응간의 경로분석: 우울 및 공격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6(1), 47-58
- 이종희(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연(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연, 박주희(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 이흥, 김은정(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이효심(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2013).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

- 에서 정서조절능력과 애착의 조절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2(3), 207-229.
- 장창현(200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7). **전생애 발달심리학**. 박영사.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유나(2015).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선, 조한익(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전주람, 김순옥(2012). 초등학생 고학년 남아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 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01-120.
- 정주영(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237-263.
- 정지영, 김종남(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행동 억제 기질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8(12), 227-254.
- 제미영(2014). **청소년 우울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은주, 이은희(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 주지영(2009).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22, 73-95.
-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 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 최인재(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최정아, 이혜은(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295-326.
- 최진숙, 조수철(1990). 소아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한송이, 장석진(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459-479
- 한연숙(2007).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의무자 인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은미(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준(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 응집력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은(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태화, 황순택(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545-568.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01.
- Bandura, A. (1978).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m Barber(Ed).
 Inst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method, and cultur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40-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37.
- Beck, A. T. (1974).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A cognitive model*. Friedman, Raymond J. (Ed); Katz, Martin M. (Ed).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xvii, 318.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861.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latt, S. J., & Homman, E. (1992). Parent-Childinteraction in the etiology of dependent and self-critical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1), 47-91.
- Blitstein, J. L., Murray, D. M., Lytle, L. A., Birnbaum, A. S., & Perry, C. L. (2005). Predictors of violent behavior in an early adolescent cohor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genders. *Health Education &*

- Behavior*, 32(2), 175-194.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 information precession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4), 1134-1142.
- Crick, N. R., & Nelson, D. A. (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friendships: Nobody told me there'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599-607.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27-138.
- Cummings, E. M., Goeke-Morey, M. C., & Papp, L. M. (2004). Everyday marital conflict and chil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2), 191-202.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Erikson, E. M. (1980). *Chil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Doyle, A. B., & Markiewicz, D. (2005). Parenting,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from Early-to Mid-Adolescence: Mediated by Adolescen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97-110.

- Erikson, E. M. (1980). *Chil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rguson, C. J., Averil, P. M., & Rhoades, H. (2005). Social Isolation, Impulsivity and Depression as Predictors of Aggression in a Psychiatric Inpatient Population. *Psychiatric quarterly*, *76*(2), 123-137.
- Field, T., Diego, M., & Sanders, C. (2001).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Adolescence*, *36*(3), 491-49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amilton, M. E. (1982). Depression and Aging. *Issues in the Study of Ageing, Dying, and Death*, *5*(2). 99-152.
- Henington, C., Hughes, J. N. M., Cavell, T. A., & Thomson, B. (1998).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in identifying boys and girl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4), 457-477.
- Huston, A. C., & Alvarez, M. M. (1990). The socialization context of gender role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Advanced in adolescent development: Vol. 2,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156-182. Newbury Park, CA: Sage.
- Kagan, J., & Moss, H. A. (1962). *Birth to maturity: A study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Knox, M., King, C., Hanna, G. L., Logan, D., & Ghaziuddin, N. (2000). Aggressive behavior in clinically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611-618.
- Kopper, B. A., Osman, A., Osman, J. R., & Hoffman, J. (1998). Clinical utility of the MMPI-A content scale and Harris-Lingoes subscales in the assessment of suicidal risk factors in psychiatric adolescents. *J Clin Psychol*, *54*(2), 191-200.
- Krantz, J. (1985). Group Process Under Conditions of organizational Declin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1*(1), 1-17.
- Kuehner, C. (2003). *Gender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an update of*

epidemiological findings and possible explanations.

- Lee, A., & Hankin, B. L. (2009). Insecure attachment,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predicting prospectiv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8*(2), 219-231.
- Lerner, R. M., & Steinberg, L.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Lewinsohn, P. M., Rohde, P., Seely, J. R., Klein, D. N., & Gotlib, I. H. (2003). Psychosocial functioning of young adults who have experienced and recovered from major depressive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353-363.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22-133.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iuro, R. D., Sahn, T. S., Vitaliano, P. V., Wagner, B. C., & Zegree, J. B. (1988). Anger, hostility and depression in domestically violent versus generally assaultive men and nonviolent control subj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 17-23.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Aggressive Behavior, 30*(5), 430-439.
- McWayne, C. M., Owsianik, M., Green, L. E., Fantuzzo, J. W. (2008).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skills: A question of the consequential validity of traditional parenting

- constructs for low-income African America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2), 173-192.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lson, D. A., Yang, C., Coyne, S. M., Olsen, J. A., & Hart, C. H. (201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mensions: Connections with Russian preschoolers'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1-8.
- Ollendick, T. H., & Wollff, J. C.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 201-220.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479-49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land, E. (2002). Aggression, depression and bullying others. *Aggressive Behavior*, 28(3), 198-206.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 98-131.
- Rutter, M.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depression: Issues and perspectives*. In M. Rutter, C. E. Izard, & P.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3-32). New York: Guilford Press.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6), 1424-1436.
- Underwood, M. K., Galen, B. R., & Paquette, J. A. (2001). Top ten challenges for understanding gender and aggression in children: Why can't we all just get along? *Social development, 10*, 248-266.
- Xie, H. Cairns, R. B., & Cairns, B. D. (2002). The development of social aggression and physical aggression: A narrative analysis of interpersonal conflicts. *Aggressive Behavior, 28*(5), 341-355.
- Yoon, J. S., Barton, E., & Taiariol, J. (2004). Relational aggression in middle school: Educational of developmental researc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3), 303-318.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on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Relational Aggression

Kim, Su Hui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ediating effect by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al aggression, and depression. To do thi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Q1. Does depre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perceived by male students and relational aggression?

Q2. Does depre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perceived by female students and relational aggression?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n 355 students in the 1st, 2nd and 3rd grades at 4 middle schools in Jeju Island.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relational aggression scale, and depression scale were used.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method proposed by Baron and Kenny(1986). In addition, a Sobe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al aggression, and depression of par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was all significan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father perceived by the 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father perceived by the fe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de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relational aggress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mother perceived by the 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mother perceived by the fe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de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relational agg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relational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by looking at the variables related to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finding mediator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help lower relational aggression by confirming that a customized strategy according to gender is needed to reduce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ey word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부 록

부록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부록 2. 관계적 공격성 척도

부록 3. 우울 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번호	문항	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				
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잘라버리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알려 주시려고 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어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9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가족에 대해 의리가 없다고 하시거나,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0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어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아버지(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릴 때까지 내게 말하지 않으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잘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관계적 공격성 척도

번호	증상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종종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한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끔 한다.	①	②	③	④
6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7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	①	②	③	④
8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1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쪽지에 써서 돌린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친구를 뺏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2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게끔 한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면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14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③	④
16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를 뺏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을 때, 보통은 특별한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①	②	③	④
19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집단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①	②	③	④

우울 척도

번호	문항	극히 드물게 (1일)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나는 지난 1주 동안 _____.”				
1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6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①	②	③	④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0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①	②	③	④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6*	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18	슬픔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